

“노벨상 도시... 광주 민주주의·문화 세계가 인정”

‘한중일지방정부교류회의’ 본회의 400여명 참석...협력·상생 등 모색
강시장 “포용성장 공동목표” 제안
GGM·비엔날레 등 산업·문화 체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광주는 노벨상의 도시가 됐다. 광주의 민주주의와 문화를 세계가 인정해준 것 같아 기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양완밍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야스다 미츠히 일본 자치단체 국제화협회 이사장 등 한중일 지방정부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주제발표에서 ‘포용도시’ 광주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더불어 잘사는 동북아를 꿈꾸는 포용성장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성장을 공동의 목표로 제안했다.

강 시장은 먼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언급하면서 “80년 5월 고립돼 외로웠던 광주가 오늘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광주를 기억하고, 손잡아준 전 세계인과 수많은 도시들 덕분이다”며 “이제 광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회식’에서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양완밍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야스다 미츠히 일본 자치단체 국제화협회 이사장과 화합 상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주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도시가 돼 성공의 경험과 시행착오까지도 세계에 나눌 것이다. 이같은 포용도시의 광주의 시정 철학이자 정책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일상이 된 기후위기,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수축사회 등 도시문제를 짚고 “한중일인 평화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민간과 도시는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며 한중일을 지탱하는 뿌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포용도시’ 시정 철학에 걸맞은 정책을 소개하고, 품어안는 포용도시를 넘어 성장하는 포용도시인 ‘포용성장’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민주주의산업,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문화산업의 세 성장

축을 설명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대한민국 표준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광주다움통합돌봄’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이자, 시민역량을 키우는 민주주의 정책이고, 민간의료 및 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1석3조의 민주주의 산업업이 강조했다.

또 전국최초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만들고 지원센터를 만들어 혼자 외롭게

있는 이들을 사회속으로 끌어낸 일명 ‘은둔이 정책’ 등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민주주의 도시라면, 시민 일상의 삶이 민주적이고 자유를 향해 가야한다는 취지에서 민주주의산업으로 이름 붙였다”며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생활속 민주주의로 더욱 확장돼야한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누구나 예술을 즐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산업도 함께 소개됐다.

강 시장은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창작하는 거점공간인 ACC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포용산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 시장의 주제발표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복합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 신뢰강화’, ‘한중일 도시 및 시민교류 활성화’, ‘스마트 도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한중일 대표단은 23~24일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등을 통해 광주의 산업을 배우며, 광주비엔날레 방문을 통해 광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시 제공

최권범 기자

한국시리즈 사상 최초 서스펜디드 선언에 압표 기승

일시정지

중고거래 플랫폼 티켓 판매글 도배
경범죄처벌법 위반 압표상 적발

한국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서스펜디드(일시정지)가 선언되면서 입장권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급증하자 압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한국 시리즈 입장권을 기존 가격에 웃돈을 얹어 되팔려는 압표상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삼성라

이온즈의 한국시리즈 1차전이 펼쳐진 지난 21일 6회초 0-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천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포스트시즌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다.

연기된 경기는 22일 오후 4시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연일 내리는 비로 인해 하루 더 연기되면서 23일 오후 4시부터 1차전 경기가 펼쳐진다.

중단된 1차전 관람객 입장은 1차전 티켓 소지자에 한해 가능하며, 별도 재매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을 사

고 판다는 게시글이 도배되고 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기된 경기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티켓 소지자가 해당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압표 판매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등에는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해당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경기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직접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티켓은 웃돈이 얹어져 정가보다 몇 만원가량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순연] 한국시리즈 1차전 2차전 23일(수요일) 광주 챔피언스필드 / 1차전 2... 90,000원
온라인 전용, 택배 거래, 직거래
중고나라 | 25분 전



[한국시리즈] 1차전(서스펜디드)+2차전 삼성라이온즈 vs 기아타이거즈 1... 300,000원
온라인 전용
중고나라 | 49분 전

22일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한국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서스펜디드가 선언된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 1차전 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중고나라 사이트 갈무리

앞서 2024 KBO 한국시리즈(KS) 1차전 경기가 열린 지난 2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압표를 판매한 40대가 적

발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지난 21일 4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일 오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3만5000원 상당 경기 예매권을 1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해 압표 거래 사실을 추궁했다.

A씨는 단속 경찰에 압표 거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표 매매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